

GGM “2교대 체제 연내 도입…10만대 생산체제 구축”

윤몽현 대표 신년사서 밝혀, 수당 인상·직무 수당 신설 등도 약속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재차 강조…파업 가결 노조 향후 행보 주목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올해 2교대 체제를 다시 시도해 10만대 생산체제 구축에 나선다. 지난해 노조의 반대로 2교대 체제를 도입하지 못한 GGM은 올해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해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에 다시 2교대 도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승급 기간 단축, 수당 50% 인상, 직무 수당 신설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제는 노조의 파업 여부다. 노조는 지난해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찬성률 88.9%로 통과시켜놓은 상태로, 향후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GGM의 올해 신년 계획도 그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GGM의 윤몽현 대표가 올해 계획을 밝힌 신년사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와 상생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몽현(사진) GGM 대표이사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상생 협력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전기차(캐스퍼 EV) 양산과 최고 실적을 달성했

다”며 “2025년에는 2대 근무 도입으로 고용안정에 힘 쓰고, 각종 수당 인상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이사는 신년사에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포함해 ‘상생’을 16차례 언급하면서 구성원들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최근 GGM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이 쟁의에 찬성, 파업 기로에 놓였는데 윤 대표는 ‘무노조·무파업’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만이 회사의 GGM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지난해 성과와 관련 이날 직원들에게 약 480만원의 기여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GGM은 지난해 전년 대비 생산성이 6% 증가하면서, 직원들에게 전년보다 60% 늘어난 기여금을 지급했다. GGM은 올해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7% 늘어난 5만6800대로 생산량 증대로 직원



들에게 돌아갈 기여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올해 생산량은 전기차 비중이 84%이 중 수출이 90%”라면서 “GGM은 수출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럽 수출을 시작한 캐스퍼 EV는 올해부터 본격 시장 반응 및 성능과 품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캐스퍼 EV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판매가 더 늘면 생산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상생 협력의 힘으로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한번 거둬보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윤 대표는 올해 추진하게 될 3가지 핵심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우선 GGM은 올해 캐스퍼 EV 물량 증대에 기반해 2교대 도입을 재추진한다. GGM 2교대 도입은 지난해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윤 대표는 올해 계획 물량을 차질 없이 소화해 고객사인 현대차에 2교대 도입을 요청할 방침이다. 2교대를 시작으로 10만대의 생산과 20만대 생산 체계까지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가 절실하다.

윤 대표는 “GGM이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더욱더 안정적이고 더욱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GM은 또 보람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승급 기간 단축, 수당 50% 인상, 직무 수당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수당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상생 협력이 달성되면 가

능하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날 직원들에게 상생협력의 기업문화 정착 등 3가지 당부사항도 전했다. 윤 대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GGM 설립의 근간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협정서 있기에 일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GGM 직원들이 입사 시 협정서를 준수에 서약했고, 채권단과 주주단도 협정서를 믿고 대출 및 출자를 한만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표는 또 오는 2월 일본 수출이 시작됨에 따라 품질 확보에 힘써달라며 ‘순결 품질 확보’로 현대차와 گیا보다도 우수한 품질을 확보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자는 얘기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안전 관리 규정 준수 당부했다.

윤 대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최대 생산과 그 결실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며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불황에 불확실성 확대…광주 1분기 제조업 체감경기 최악

BSI 84…전분기보다 10P 하락 기업 70% “2024년 이익 목표 미달”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1분기 체감 경기가 지난해보다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 감소했고, 지난해 목표했던 영업이익을 달성한 기업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 내 12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지수’에 따르면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전분기(94)보다 10포인트 하락한 84로 집계됐다. BSI는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하락했다.

BSI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광주상의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보호

무역주의 확대 및 해외생산 확대로 인한 생산·투자 감소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체감경기가 3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영환경별로는 3분기 100을 넘어섰던 (101) 매출액이 85로 16포인트 줄었고, 영업이익(90→78)과 설비투자(95→90)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자제품·통신(104→88), 자동차·부품(81→74), 기계·장비(89→60), 화학·고무·플라스틱(82→79), 유리·시멘트(100→33) 등 대부분 경기 전망이 악화됐다. 대·중견기업(77→67)과 중소기업(96→86) 악화될 것으로 봤으며, 수출기업(112→85)과 내수기업(91→84) 모두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조사대상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64로 전분기(71)보다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75→65)과 영업이익(63→58), 설비투자(102→82), 자금사정(61→67) 등 대부분 항목에서 3분기 보다 감소했으며,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무엇보다 응답 기업의 70.4%가 지난해 영업이익이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목표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7.6%, 초과 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목표치 미달성 원인으로는 ‘내수부진’(48.9%) 응답률 가장 높았고, ‘수출부진’(20.5%)과 ‘원자재가격’(20.5%), ‘고환율’(2.3%), ‘고금리’(1.1%) 등도 꼽혔다.

지난해 세웠던 투자실적도 미달될 것이라는 응답이 51.2%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자제품,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들의 업황 부진이 계속되는 데다 국제경제 불안 또한 심화되면서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위축이 예상되는 산업들의 내수 진작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공급망 안정화,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등 다각적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신입사원 10명 선발 입사식

해양에너지는 지난 1일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맞춰 최근 신입사원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지역 인재로 지난해 5월부터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실무진 및 임원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선발된 뒤, 지난 4개월 동안 다양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쌓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 지난 1일부로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해양에너지는 지자체의 지역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등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기아 EV3 ‘핀란드 올해의 차’ 선정

최종후보 6개 차종 중 최고점수

기아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사전) ‘더 기아 EV3’(EV3)가 전기차 최대 격전지 북유럽 국가 중 하나인 핀란드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기아는 5일 “EV3가 핀란드 최고 권위의 ‘2025 핀란드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EV3는 최종 후보에 오른 6개 차종 중 195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르노 세닉(181점), 시트로엥 C3/e-C3(177점), 다치아 더스터(174점), 스코다 슈퍼비(130점), 스텔라 스워드(88점)를 따돌리고 최고의 차에 올랐다.

올해는 현지 자동차 전문가로 구성된 63명의 심사위원단이 후보에 오른 45종의 신차를 대상으로 주요 평가 기준인 가격 대비 가치(가성비)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기술 혁신, 성능, 공간 및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올해 EV3의 ‘2025 핀란드 올해의 차’ 선정으로 2023년 니로 EV, 2024년 코나 일렉트릭에 이어 3년 연속 핀란드 최고의 차에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양극화 심화…소득 상하위 10% 격차 처음으로 2억 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 위협될 수도…구조적 과제 해소 고민 필요”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소득격차가 처음으로 연 2억원을 넘어섰다. 이들 계층의 자산 격차는 15억원 이상으로 벌어졌다.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5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조사 연도 기준 지난해 가구 소득 상위 10%(10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2억 105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억9747만원)보다 1304만원(6.6%) 늘어 통계가 작성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재산소득이 전년보다 459만원(24.7%) 급증하며 소득 증가를 주도했다.

근로소득은 572만원(4.1%) 늘었고 사업소득도 262만원(7.5%) 증가했다. 소득 하위 10%

(1분위)의 연 평균 소득은 1019만원으로 전년보다 65만원(6.8%) 늘었지만, 소득 격차를 좁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소득 상하위 10%간 소득 격차는 2억32만원으로, 역시 2017년 이래 처음 2억원을 넘겨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성과급 잔치’가 이어지며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고소득자의 이자·배당수익 등 재산소득이 불어나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 격차는 자산 양극화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자산은 16억2895만원으로 소득 하위 10%(1억2803만원)보다 15억원 이상 많았다.

국책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이런 양극화 구조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홍범교 전 한국조세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조세연에서 발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가 한국의 부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의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안전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치불안으로 인해 양극화 등 구조개혁과 관련한 고민은 뒷순위로 밀린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장기적 고민할 속도를 미루다 보면 해결할 수 없게 된다”며 “정치적 리스크나 대외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중요하지만 ‘양손잡이’처럼 구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에 관한 고민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87조원

현금결제 85%…대부분 기한내 지급

작년 상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의 ‘24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로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액, 관련 분쟁 조정기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이 1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조 4000억원), HD현대(6조2000억원), 엘지(4조 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현금 결제 비율은 평균 85.24%였다.

/연합뉴스

12주 연속 상승 광주·전남 기름값 더 오른다

1월 첫째주 휘발유 6.77원 올라

광주·전남지역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12·3 계엄선포 이후 고환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추후 기름값이 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12월29~1월2일) 광주지역 주유소들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1당 1651.69원으로 전주(1644.92원) 대비 6.77원 올랐다.

광주 휘발유 판매가는 지난해 10월 둘째 주 1560.48원을 기록한 뒤 12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11월 둘째 주에 1609.07원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1650원 선을 돌파했다.

전남 휘발유 판매가는 1월 첫째 주 기준 1당 1672.02원을 기록했다. 1주 전(1663.33원) 대비 8.69원 상승한 수치다. 전남 역시 광주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둘째 주 1595.89원을 기록한 뒤 12주 연속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휘발유 판매가 상승세가 광주보다 급격해 지난해 10월 다섯째 주 1603.09원으로 1600원 선을 넘어선 뒤, 12월 셋째 주에는 1654.66원을 기록했다. 향후 기름값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

큼, 조만간 휘발유 판매가가 1당 1700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름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미국 달러화 강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국제 정세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보험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 정국 장기화 등에 따라 원화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끝없이 치솟으면서 국내 기름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 로도복권 (제 115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9	10	13	35	44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027,312,925	15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155,473	79
3	5개 숫자일치				1,445,603	3,506
4	4개 숫자일치				50,000	167,692
5	3개 숫자일치				5,000	2,848,165